

영암, 제1회 추경예산 7,249억 편성

본예산 대비 총 835억원 증액 경기 불황·인구소멸위기 반영 지역경제 회복·농가안정 역점

영암군은 최근 2023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2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6,414억원) 대비 835억원(13.01%) 증가한 것으로, 혁신·인구·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농가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38억원(12.67%)이 증가한 6,56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3.43%)이 감소한 10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01억원(20.64%) 증가한 588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835억원(13.01%)이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46억원, 환경 179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49억원, 문화관광 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억원 등으로 청년 친화 미래경제를 선도하고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생태관광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58억원을 편성했으며, AI 전염병 확산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보상비 89억원, 벼 가격 안정화대책

장려금 3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10억원 등 농가 소득 안정을 통한 농생명산업 일변지 영암 실현에

큰 비중을 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소멸에 대응해 영암군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천황사지구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유지를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삼호시장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지속 가능한 혁신 영암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 밖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6억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억원, 남주로 지중화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대불산단 지원을 위한 개조전기차 튜닝지원 기술개발 및 주행안정성 실증사업 27억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온송플랫폼 구축사업 12억원, 친환경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지원사

업 11억원, 대불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11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영암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도비 부담금 증가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계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인구소멸, 기후 위기 등 대전환기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군민행복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시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의는 오는 22일부터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결할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광 K-드론 일자리 창출 속도 공모 선정 1억5,000만원 확보

영광군은 전남도가 공모한 ‘2023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은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남도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드론산업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레저, 물류, 교통, 스마트팜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에 선정된 ‘영광형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 과정에는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창업예정자 20명을 선발해 드론 분야 실무위주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드론 전문 인력 육성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창업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강진군수,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부사장 면담

4차산업혁명 관광상품 개발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게임 개발사 ‘라이언하트 스튜디오’(경기도 분당)를 방문해 이한순 부사장을 면담했다.

강진원 군수는 군의 자연, 역사, 관광, 문화 콘텐츠를 4차산업혁명 활용을 통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총괄적인 자문을 구했다.

강 군수는 전반적인 4차산업혁명의 활용뿐 아니라, 게임 캐릭터 활용 굿즈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게임 콘텐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타진했다.

이번 만남은 강진군의 자연 문화 관광 등 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라이언하트 스튜디오 이한순 부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양한 콘텐츠를 4차산업혁명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과 상품개발 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신 기술을 담은 새 정책의 모색을 위해 군에서 먼

저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는 모바일 게임 ‘오딘’의 개발사로, 2018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21년 출시 4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서 매출 1위로 떠오르며 게임 업계의 무서운 신인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여기에 2021년 11월, 카카오게임즈에서 라이언하트의 지분 51.95%를 인수하며 여전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자본력까지 확보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생태·산업·역사 등 우수한 콘텐츠가 가득한 곳”이라며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에 ‘강진’을 녹여 새로운 방법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한순 부사장은 “라이언하트 스튜디오의 출발은 작은 게임회사였지만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며 “강진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4차산업혁명 활용과 융합시킨다면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 간선도로 아스콘 포장 추진 봄맞이 환경정비·전국체전 대비

목포시는 봄맞이 환경정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노면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올 한해 17개 노선, 9.1km에 대한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총 23억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상반기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간선도로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다. 해안로 등 9개 구간 2.6km가 해당되며 주로 소성변형, 거북등 균열, 파손 등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대상이다.

먼저, 해안로(신안비치 호텔~옛 조선내화 900m)가 3월 하순 공사가 진행된다. 4월에는 영산로(목포과학대~교대부속초등학교 500m), 5·6월에는 양율로(동초교사거리~종원나이스빌) 외 6개 구간 1.2km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완료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목표시 관문인 고하대로(신항교차로~신항삼거리) 등 주요 도로 8개 구간 6.5km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이면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상반기 내 3개구간 1.1km 정비할 계획으로 목포 도심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황칠나무, 지리적 표시 등록된다

해남군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 표시 등록임산물로 등록된다.

해남황칠나무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를 최종 통과해 산림청 공고를 앞두고 있다.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남 황칠나무의 우수성

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해남황칠나무가 최종 등록되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황칠나무

클릭! 고향 속으로



축산 사랑 주부 모임, 튀르키예 성금 기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전순덕)이 최근 영광군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전순덕 회장은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해 튀르키예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신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금을 기탁해 준 축산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많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전남도립대 총장·전임교수, 고향기부 동참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한 전임교수 40명이 1인당 10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전남도립대는 담양군과 협약을 맺고 협력사업 발굴,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상생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남도립대의 의미 있는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가 헛되지 않도록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부사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지역을 살리는 좋은 취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NH농협 나주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

나주시는 최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2022년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적립기금은 총 9,7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가 증가했다.

해당 기금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작년 한 해 공무원 복지·법인가드, 각종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금 카드 사용 액수의 0.1~1%를 적립한 금

액이다. NH농협 나주시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나주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기금은 주민 복지증진, 지역 개발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신경훈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봉사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